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조위원장 김용일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기가 되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또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역시 올 한해는 노동조합을 이끌며 아쉬움과 부족함에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올해 합병 이후 처음으로 통합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단체협약이지만, 양사의 서로 달랐던 제도를 통합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기대와 희망을 조금이나마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분회 순회를 다니면서 조합원 동지들을 보였습니다. 향후 교섭 방향과 올해 교섭 과정을 성실하게 거짓없이 전달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동지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때로는 따가운 질책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3개월 동안에는 혼자 지방 점포를 돌며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찾고자 조합원동지들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금은 회사와 2020년 임금 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연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하여 진일보한 교섭 안을 들고 조합원동지들을 뵙고자 합니다.

회사는 매년 사상최대이익을 갱신하고 엄청난 규모의 자본금을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 동지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척박한 영업환경을 탓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자괴감마저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이 조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려운 역경일지라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많은 갈등요소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본지점 간의 갈등, 영업 직원과 업무 직원 간의 갈등, 채널 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등 어느 하나 슬기롭게 풀어 나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대치에 항상 미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동지들 각자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돌봐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해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새해부터는 동지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내 주변 동료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2020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노동조합 역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어느 누구보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2020년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노조위원장 김용일 드림